

# 광주시, 복합쇼핑몰-골목상권 상생 해법 모색

시-민주당 광주시당,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  
지역경제 영향 진단·정책적 대안·상생 모델 등 논의

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개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론회는 김은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

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 교수가 ‘대규모 점포 출점이 지역상권 및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지도토론에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민경분 광주상인연합회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성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명진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들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긍정 효과 및 속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의 구체적 상생 방안,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으로 복합쇼핑몰 토털 매장 마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상생홍보관 등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상권 마케팅 방안 마련, 지속적인 상

활원 변화,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에

높이는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고,

여러 곳의 입장 사례와 용역 결과를 통해 소비구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

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정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소

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질

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소비구매력을

## 선거비 제한액 확정…광주시장 7억·전남지사 15억

광주·전남 선관위, 6·3 지선 선거별 한도액 공고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주요 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25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600만원,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 선거는 1억28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6200만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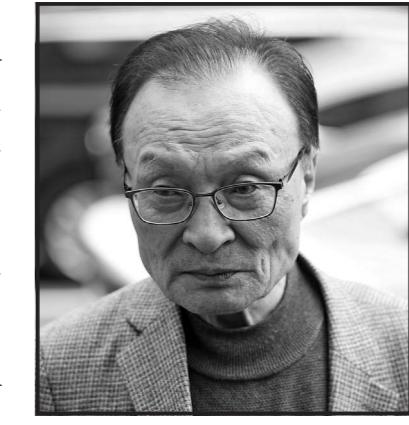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와 전남 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5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3400만원, 서구청장 선거 2억300여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8400여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5300여만원 순이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

## ‘민주세대 상징’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현지서 치료 중 숨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 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심근경색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천연 당분 고로쇠 수액 채취 9개 시·군 505임가 160만ℓ

전남도는 광양 배운산, 구례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9개 시군 505임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885㏊ 10만 8000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160만 3000㎘ 생산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다. 3월까지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시군 산림부서에서 505임가에 수액 채취를 허가. 임기당 12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거울철 농한기 틈새 임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 104임가, 226㏊에 대해 천환경 농산물 인증제 적용금이 지원되며 2억4800만원의 별도 소득이 예상된다. 이현규 기자

### ▶1면 ‘통합교육감…’서 계속

강기정 시장은 “교육통합의 실익은 있는지, 공직자 불이익은 없는지, ‘광주’라는 보통명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광주·전남의 정사진을 담은 특례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원들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특별법 밤의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 특별법안을 최종 보완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일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 활용하기엔 한계” 답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회에 더불어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전진숙 “사조위, 무안공항 둔덕 용역 ‘한계’ 인정”

#### 지역인재 경력자 440명·중증장애인 68명 선발도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선발할 예정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규모가 1443명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과 ‘나라일터’(gojobs.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부처별 선발 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우선 지역 인재의 경우 7급(180명)과 9급(260명)을 합해 총 44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7급은 오는 27일부터 9급은 7월 27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경력자는 68명을 선발하며, 3월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지역인재·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민간 경력자(5급·7급)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해 공고한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